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정 현상에 대한 경험 탐색

추 갑 식*
(경북대학교)

The Experience Study on Patterns Phenomenology in the Allocation of Subject-specialized Teachers at Elementary Schools

Kap-Sik CHOO*
(Kyo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various conditions, which are recognized by teachers in the allocation of subject-specialized teachers at elementary schools, into five types of conflicts, in order to offer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and allocation of the subject exclusive system henceforth. The study, therefore, categorized the actual allocation process experienced by subject-specialized teachers at elementary schools into five aspects the first is, understanding of students, the second, the ability to teach exclusive subjects, the third, a relationship with students, the fourth, workplace environment at schools, and the fifth, the continuity of subject specialist teachers. Conditions demonstrated in each category are classified into the types that occurred by individual and mutual roles demonstrated through in-depth, where keywords are selected by aspects to suggest conflict conditions.

In order to operate the subject exclusive system more efficiently and to boost the effects of positive education, the workplace environment at schools need to be improved urgently, including a variety of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and financial support. The most vital requirement is to prepare groundwork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collection of extensive opinions from field teachers based on a consensus that a school is an educational community. The study anticipates that the result could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qualitativ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subject exclusive system at elementary schools.

Key words : Subject exclusive system, Subject exclusive allocation, Confli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교과전담에 대한 고민과 배정을 시작하는 계기는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들어오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교육부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

하여 제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영어를 학교장 재량 선택 교과로 가르치도록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95년에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1997년부터 정규 교과로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주당 2시간을 가르치게 되면서 담임교사의 과다한 수업부담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Park Een-Jung, 2008).

* Corresponding author : 010-3480-6502, chledl@hanmail.net

교사의 이러한 과도한 수업부담은 교과 지도의 전문성에도 심각한 우려가 발생되었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과전담제 실시로 연결되었다. 이 제도는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특정 교과나 특정분야에 대한 좀 더 심도 있고 창의적인 수업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의욕과 호기심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교과전담제(Subject Specialist System)는 “한 교과 또는 상호간에 관련이 깊은 교과의 몇 개를 각 교사가 담당하고 학생의 지도를 보살피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교과 전담제는 한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을 책임 지도하되 특정 교과는 특정 교사가 전담하여 지도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Kim Ho-Gyoung, 2012).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과전담제는 운영 방법과 그 역할에 있어서 고학년, 업무배정 등으로 인해 교과의 본질과 교사의 역할에서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가운데 교과전담교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수제도 실시, 단기 기간 계약을 맺고 채용하는 비정규직 교사의 채용 문제 등 현장 교사들의 불만과 갈등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②항에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급 담임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 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 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Education law books publish, 2013)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전담제는 담임교사의 주당 수업시간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과전담교사의 전문성이나 아동들의 학습권 보호 측면은 경시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Nam Kang-Ruel, 200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준하는 충분한 교과전담교사의 수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전문성 개발과 학교 사정에 따른 교과전담교사의 배정의 대립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과전담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강조하거나 통계학적인 연구를 통해 경향성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교과전담교사의 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을 파악해서 쟁점화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에 따른 교과전담교사의 배정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상황을 탐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교과전담교사를 배정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행위와 현상에 대하여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생각, 혹은 인지(cognition)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세계를 되도록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교과전담교사 배정 시 어떤 갈등의 감정들이 나타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가. 교과전담교사의 갈등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들은 담임교사와는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갈등(conflict)의 어원의 시작은 라틴어의 conflictus에서 온 말로 이는 '함께'를 의미하는 'com'과 '부딪히다'를 의미하는 'fligere'의 합성어로 "striking together"을 의미하는 것에서 부터다. 여기에는 긍정과 부정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말 갈등(갈등)에서도 둘이 서로 뒤엉켜 살아남으려는 상호 보완적이고도 경쟁적인 관계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Kim Ju-Hae, 2004).

초등교육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간의 교류는 매

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학급담임제를 선호해왔다(Ko Kyoun-Hee, 2005). 더욱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교과간의 중복을 피하며 학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합교과로 운영한다. 그러나 고학년의 경우는 교과가 분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과 간에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사람의 교사가 전 교과를 지도한다는 것은 교육의 다양화에는 부합되는 것일 수 있으나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학급담임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과전담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인해 교사들간에 배정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전담제도와 관련한 이러한 갈등양상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학생의 관점이 아닌 교사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Lee Han-Hwa(2007)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과전담교사 및 최근 2년 이내 교과전담교사 경험이 있는 교사 32개교 300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과전담교사들은 대인관계나 직무관계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교과전담제로 인한 그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교과전담교사로 배정받기까지의 상황과 실제 배정받고 운영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겪는 상황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전담교사의 배정실태

교과전담제란 학급담임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과전담교사가 하나의 교과를 맡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제도로서 한 명의 교사가 한 학급을 담당하여 전 교과를 가르치는 학급담임제와 상반된 개념을 내포한다(Kim Ho-Gyoung, 2012). 따라서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과전담교사와 학급담임교사의 배정에 그만큼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교과전담과목에서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영어, 체육, 음악, 실과, 도덕 등의 과목을 전담과목으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수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교과가 아닌 교과전담 대상 모든 교과를 하나의 의미에서 보고 그 배정실태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선 학교에는 전담교사를 배정할 때 자질에 관한 논란이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Kim Nam-Hong(2002)은 학년전담제 운영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현재 많은 학교에서 담임배정은 교사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고 있으며, 담임배정 시 근무를 선호하는 학년이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담임의 배정에 있어서 교과전담교사보다는 교사의 전문성이 많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Lim Jae-Moak(2003)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담임배정을 할 때 교사의 희망, 교과지도능력, 교사의 특기나 소질, 사무분장, 학년특성 등의 순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배정은 연령, 교육경력, 교사의 희망, 학년의 특성 순으로 고려된다고 응답하여, 실제 담임 배정에 있어서 교과지도능력이나 특기, 소질 등의 전문성이 우선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ok Hae-Seung(2010)의 연구에서는 교과전담제에 대해 교사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사들이 전담교사를 배정받는 상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해 보인다. 특히 당해 연도에 출산계획이 있는 교사, 학급에서 학생들 생

활지도에 문제가 있는 교사, 업무가 과다한 교사 등에게 실제 교과전담교사를 운영하는 학교도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특기신장의 기회가 줄어들고, 폭넓은 지식향상을 통한 흥미 유발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와 오히려 담임교사 이외의 시간이 자칫 학생들에게 쉬어가는 시간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교과전담교사가 배정되는 현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봐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교사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 중 3명은 대구광역시 소재 2개의 초등학교(A 초등학교 2명, B 초등학교 1명으로 구성)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2명은 현재 A초등학교에 같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두 명 모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연구자가 교과전담을 하며 가장 가까워서 생활하여 어느 정도 래포가 형성되는 데 그만큼 수월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다양한 현상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가장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거라는 인식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이 중에 한 교사는 연구 시작년도에 전입해와 이전 학교의 경험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점도 같은 학교에서 2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이유이기도 했다. 다른 1명은 B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영어전담만 13년을 해 왔고 다른 한 교사는 경력이 6년차였다. 또한 30대 연령층의 교사 참여자들을 가장 많이 선정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교사들이 초임발령 받기 얼마전에 초등영어도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교과전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현상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고, 그만큼 교과전담배정과 관련한 경험이 어느 연령대보다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Table 1> Teacher Background

E.S(Elementary School)

Name content	KimJonghe	Leesunghun	Haneunmi	Yundahyun
place	Daegu A E.S	Daegu A E.S	Daegu B E.S	Kyongbuk A E.S
age	39	34	43	31
Teacher career	16	11	22	7
Specialized Subject Teacher Career	8	6	13	4
note	degree of doctor (physical education)	degree of doctor (physical education)	English deepen traning finish	university graduate music class

2.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가 만든 질문지에 의거해 질문이 진행되는 반구조화된 면담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2> Research time and process

process	contents	time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bject plan subject set-up literature research meet plan 	2013.4
		2013. 5
Data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udy participants meet Data copy 	2013. 6
		2013. 11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ult analysis Implications analysis 	2013. 11
		~ 2014. 2

본 연구의 자료는 교사 연구 참여자 4명과의 온라인 질문 및 심층면담, 동료교사의 관찰 등으로 수집되었으며 자료 수집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Table 3> Meet date and Time

S.C(Science Classroom), S.T.C(Specialized Subject Teacher Classroom), M.C(Music Class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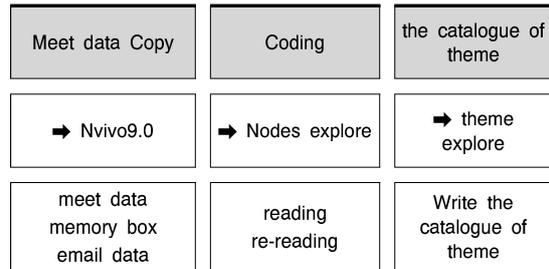
Teacher	E-mail			Meet		
	primary	secondary	tertiary	Date	Place	Time (minute)
KimJonghe	2013. 6.14	2013. 6.28	2013 .7.5	6.20	S.C	42
				9.6	4-5	38
				10.24	4-5	45
Leesunghun	2013. 6.14	2013. 7.2	2013 .7.18	6.21	S.T.C.	45
				8.13	"	44
				9.21	"	55
Haneunmi	2013. 6.14	2013. 7.5	2013 .8.18	6.6	6-2	48
				9.14	M.C	42
				10.17	"	45
				11.2	S.T.C.	32
Yundahyun	2013. 6.14	2013. 7.28	.	7.21	"	33
				9.8	university	48

위의 <Table 3>과 같은 구조에서 면담을 실시하면서 특히, 힘들었던 점은 연구참여자와의 시간을 잡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메일을 통해 기초 자료 및 가능한 면담일정을 계획하였지만 학교 업무와 출장,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계획한 날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밤늦게 면담을 진행하거나 가끔은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한 날도 있어 연구참여자와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유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나. 자료 분석

자료 분석 과정은 김영천이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 방법 중 전사, 코딩, 주제 발견이라는 3단계 과정에 따라 수행하였다(Kim Young-Chun, 2006). 자료 전사는 컴퓨터 파일로 1차 저장하고 Nvivo 9.0 프로그램을 통해 범주화 해가며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정리 방법은 텍스트의 특정한 부분

이나 강조되고 있는 점, 새로운 주제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될 때, 목록화하고 범주화하여 1차 노트(주제에 해당)를 발견하여 반복적으로 읽고 수정을 통해 5가지의 주제로 범주화 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 [Fig. 1]을 통해 제시하였다.



[Fig. 1] Data Analyse Process

3. 자료의 진실성 및 윤리성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각도 접근법, 연구참여자의 검토와 지속적인 개입, 그리고 연구자의 방법적인 반성 등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먼저 구한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신분과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물을 연구참여자와 동료교사, 질적 연구 박사학위 소지자의 반복적인 공유를 통해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나갔다.

Ⅲ. 연구 결과

1. 학생에 대한 이해심

교과전담교사이든 담임교사이든 결국은 교사로서 학교에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심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누가 담

임에 남고 누가 교과전담으로 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연구참여자들마다 다양했다.

특히 담임은 가급적 결혼해본 교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애. 자기가 아이를 한 키워 본 어머니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 특히 1학년 선생님은. 2학년은 좀 덜 하고. 왜냐하면 정말 자기 아이 안 키워보면 애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1학년을. '재들은 왜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는데 조용히 못하고' 자기 애를 키워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교과는 젊은 사람이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

<2013. 06. 21. 교사 이성훈>

이러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심과 관련된 의견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력이나 직위를 떠나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사고. 글씨를 써도 삐뚤빼뚤하게 써도 그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를 교사가 먼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담임이 잘 안되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에 반해 교과 전담교사는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 특히 영어, 음악, 체육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2013. 06. 20 교사 김중희>

이성훈 교사와 김중희 교사는 이미 자신의 아이들을 키워보고 학부모가 되어 본 경험이 있으므로 학부모의 눈으로도 교사를 판단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아이는 키워보았지만 아직 학부모로서의 경험이 거의 없는 윤다현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었다.

보걸 1학년 들어갔는데 약속 된 것도 없지, 애들이 나를 바라 해도 보나, 저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어후, 진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

<2013. 07. 21 교사 윤다현>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 때로 교실에서 문제 상황을 키울 수가 있는데,

다소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학생을 보듬어 안아가지고 키워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가 교실에 안 붙어있는 애가 많아져버리는 거야. 돌아다녀버리고.....

<2013. 06. 06 교사 한은미>

이처럼 경력이 높은 교사이건 경력이 다소 낮은 교사이건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는 모두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담임으로서 좀 더 적합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교과전담교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교사가 맡아서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나 교사들에게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 전담교과지도 수월성

학생들은 놀이를 학습과 연결시키며 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계속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시절 학부 과정을 통해 심화전공을 중심으로 교과를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과 당해년도 개인 사정이 있는 교사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갈등상황에 자주 놓인다고 털어놓았다.

교과 전담 과목마다 주의집중이나 발문, 수업지도의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심화과정을 통해 좀 더 깊은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한다.

<2013. 09. 06 교사 김중희>

한은미 : 심화과정이나 연수 때 배운 노래나, 율동이나 이런 걸 잘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어요. 지도에.

연구자 : 어떤 면에서요?

한은미 :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모든 면에서. 주의 집중이라든지, 흥미유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도 많이 써 먹었거든요.

<2013. 10. 17 교사 한은미>

위의 선생님들은 기회가 되면 늘 교수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며 그러한 것이 교과 전담을 맡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년 담임 지도에 필요한 기술들도 많이 익혀온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유지를 위해 노래나 율동, 쇼맨십과 같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한은미 교사와의 면담에서도 나타났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쇼맨십이랄까 그죠. 연출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연출을 안 하고 바로 학습 내용만 해도 되지마는 특히 3,4학년 영어, 음악, 체육 등의 교과는 교재를 시거나 낱씨 등을 고려해서 재구성하고 또 아이들이 싫증을 안 낼 수 있도록 연출을 하고, 이런 점. 또, 음악.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또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기를, 아이들 사랑하고 즐겁게 놀기를 좋아하는 ……(후략)

<2013. 09. 14 교사 한은미>

한은미 교사는 영어가 특별활동으로 가르쳐질 때부터 계속 지도하였고 교과연구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어 영역에서 활동을 하였다. 영어 교과에 있어서 음악적 요소라든지 쇼맨십이 유용하게 이용된다는 것을 체득해 온 한은미 교사는 같은 요소들이 학생 지도 시에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면에서 전담교사에게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심, 교과내용이나 교과지도방법에 대한 전반에 걸쳐 지식과 더불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도할 수 있는 세심함이 교과지도를 할 때보다 더 요구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한 능력은 대학이나 교사 발령 이후에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래야만 교과 전담 교사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권장되고 있는 요즘 교사의 영어 구사력은 수업 진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영어수업 능력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이 갖춘 교사가 영어 전담을 맡는 것이 옳바르다고 강조하였다.

(사이버 연수 강사 중 한명) 정말 잘하더라. 수업도 잘하고, 발음도 좋고, 문법적인 오류도 없었어. 말하는데. 유창하고... 아, 그 때 내가 정말 좀 참담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느꼈어. 아, 정말 비교가 안 되는구나, 상대가 안 되는구나. 교과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맡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3. 10. 17 교사 한은미>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당위론적인 지침보다는 개인 사정에 따라 교과 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한다.

지난 여름방학 때 테솔 연수를 받았는데 그 연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어교과전담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해 인사위원회에서 군대 가는 남자교사가 영어교과를 맡기더군요. 교감선생님께 말씀도 드려봤는데…….

<2013. 09. 08 교사 윤다현>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교과전담에 우선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건강상의 이유에는 임신·출산과 관계되는 이유도 포함시켰다.

보통 저희 학교는 항상 맨 먼저 임신 여부를 많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임신 중이면 거의 교과를 맡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처지에 있는 선생님들도 거의 내년에는 자신이 교과를 맡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13. 09. 21 교사 이성훈>

연구자 : 교과전담을 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은미 : 그 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오후에 시간이 아무래도 많고, 업무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 땐 건강이 나뻐기 때문에 했고, 교장선생님이 배려해 주셔서지고 2년 연속 교과전담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2013. 09. 14 교사 한은미>

한은미 교사는 평소에 교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3년 전에 특히 교과 희망자가 다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끼리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건강이 무척 나빠져 교과를 강력하게 희망하였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받아들여져 교과를 맡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에 건강이 좋지 못한 교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교사를 우선적으로 교과에 배정해주는 것은 관례화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교과전담이 수업 시수가 적은 상황이므로 건강에 무리를 덜 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출산을 앞둔 교사를 교과에 우선 배정하는 이유는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교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에 강사를 구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임시 강사들이 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나중에 좀 더 쉽게 강사를 구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를 받을 선생님을 교과전담 자리에 배정해 놓는 것이다. 교내 인사배정에서 자주 겪는 갈등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학생관의 관계

연구참여자들은 전담교사의 자질로 경력의 중요성을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위에서 언급했던 학생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심, 세심한 지도, 인내심과 같은 덕목을 갖추는 데에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리어 활동이 많고 실습의 기회가 많은 전담교과와 경우는 그 특성상 경력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래도 한 30대는 넘어야 될 것 같애. 30대 중반 정도 되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10년 쯤 되니까 그래도 애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는…….

<2013. 10. 24 교사 김중희>

교과는 지금 현재도 연세가 좀 많으시고 아이들을 많이 다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많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영어지도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안하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중략)…

<2013. 09. 08 교사 윤다현>

김중희 교사는 초임 때에 교과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본인이 했던 많은 시행착오가 짧은 경력으로 인한 이해력 부족 때문이었음을 절감한다고 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믿고 교과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학생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다.

실과 전담 선생님은 저학년 경험이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신데도 나름대로 아이들을 잘 지도하셔서 학생들이 즐겁게 보이는 것 같고…….

<2013. 08. 13 교사 이성훈>

한 분은 부장님 아니시지만 교육경력이 30년 넘고 정말 과학에서는 베테랑. 그러니까 이 분이 교과실 분위기 전체를 이끌어 가시죠. 보면은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2013. 11. 02 교사 한은미>

학부모들은 예전에 비해 자녀의 교육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는 수업 공개의 경우 예전에는 자녀의 담임교사의 수업만을 참관하고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과별로 수업공개가 이루어지고 전담이 있는 교과와 수업공개에도 학부모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질을 고민해봐야 하는 또 다른 작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신규교사가 1년간 학생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 보다 교과전담으로 배정하여 좀 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업 기술을 경험해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무엇보다 신규교사는 어떤 최신의 교육이론을 포함하여 특정 영역

에 대한 전문성이 아무래도 기존의 교사보다는 많다는 인식에서 신규교사의 교과배치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하였다.

젊은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의욕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대학원을 일찍이 다니면서 특정 교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를 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거 같긴 해요. 도리어 본인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전담 과목의 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더더욱 본인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을 겪는 것 같기도 하구요.

<2013. 07. 21 교사 윤다현>

경력 교사는 분명히 젊은 교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학생지도의 자질에 대해 물었을 때 많은 교사가 경력이 높고 육아경험이 있는 교사가 학생들과 더 잘 관계를 맺는 데 이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교과전담 과목의 지도 능력과 관계없이 단지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교과전담의 우선순위의 기회를 가져간다면 특정교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큰 신규교사에게 그러한 기회는 당연히 줄어들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함재수(2002)가 교과전담제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영어지도능력이 저하된다고 하는 결과를 보면 경력교사와 신규교사의 교과전담에 있어서의 갈등은 학교 내에서의 합의점이 도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학교 근무환경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업무경감을 위해 교사의 유형을 편의상 수업전담교사와 업무전담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학교별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교사, 즉 교무부장과 연구부장(학교에 따라서는 교육과정부장)의 보직을 맡은 교사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전담을 맡고 있다. 이는 교과전담을 맡은 교사의 수업 시간이 담임교사가 지도해야하

는 수업시간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부장 같은 경우는... 특히 교무나 연구는 주로 인제 교과를 무조건 주는 분위기잖아요. 지도하는 교과도 교무나 연구가 선호하는 과목으로 하게 되고....

일이 하도 많으니까.....

<2013. 10. 24 교사 김종희>

교과를 맡게 되는 경우 학교업무 중에서 뭐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이나 굵직굵직한 큰 업무를 맡은 사람은 오후에 수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과를 당연히 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2013. 09. 21 교사 이성훈>

아무래도 업무를 많이 맡고 하니깐 오후 시간을 학교 주요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깐...

<2013. 10. 17 교사 한은미>

2학년 1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 이셨는데, 보통 업무부장 선생님 중에서도 연구나 교무부장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워낙 업무가 바쁘시니까 저학년으로 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3. 07. 21 교사 윤다현>

이들은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 등 학교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가 교과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의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이 교과 지도에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지 업무 처리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이유만으로 교과로 배정되었다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넘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학생의 지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교내 인사배정에 참여해본 연구참여자는 학교 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감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더욱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이 과중한 업무를 부탁하게 되었는데 수업시간이라도 적은 교과를 쥐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학교의 업무분장이 있는데 업무가 많으면 일단은 고학년 수업... 이제 오후까지 있고 어떤 학교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통 교무부장님이나 연구부장님 저학년에 배정을 하잖아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잖아.

<2013. 11. 02 교사 한은미>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업무처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로 배정된다는 것보다 학생들의 교육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더 문제시 되는 것은 학교 내 비정규 교사들의 교과 배치에 대한 인식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 강사, 스포츠강사, 수학학습도우미교사, 과학보조교사, 발령대기 신규교사 등의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배치로 인해 정규 교사들이 교과를 맡는 것에 대한 부담과 경쟁의식이 의도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원어민 강사와 영어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원어민 경험을 많이 해주자는 취지에서 수업은 거의 원어민 교사가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은 선생님 말고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라고 요구할 때도 있다. <2013. 07. 28 교사 윤다현 온라인 질문 내용>

스포츠 강사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사실 체육 수업은 매번 스포츠 강사가 수업 진도와 관련한 준비를 대부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수업에 대한 내용을 사실 교사보다 스포츠 강사가 더 훤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업도 스포츠 강사가 주로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내가 업무라든지 학생지도로 바쁠 때는 부끄럽지만 괜히 스포츠 강사에게 수업을 부탁하거나 의지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생겼다. <2013. 06. 14 교사 이성훈 온라인 질문 내용>

학생들에게 교과에의 전문성을 통한 질 높은 수업을 하기 위해 도입한 교과 전담제는 위와 같은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교사들의 인식에,

그리고 학교를 경영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교과전담은 학교 업무의 해방구의 한 방편으로 치우쳐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5. 교과전담지도의 계속성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년 배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 교내 인사규정에 의한 점수제를 적용한다. 즉, 모든 교사가 선호하고 수업시수가 적은 학년을 담당했던 교사는 점수를 적게 주고 모두가 기피하는 이른바 6학년을 담당했던 교사에게는 점수를 많이 주는 등의 형식이다. 교내 인사위원회는 학년 희망서를 받아보고 한 학년에 희망 교사가 많이 몰릴 때 점수가 높은 순대로 우선 배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교사는 한 학교에서 대략 저·중·고학년, 교과를 순환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근무제가 장점은 있지만 때로는 수업준비의 효율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 동학년의 학생의 특징에 대한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 가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할 수 있다.

연구자 : 선생님이 계신 학교는 올해 교과전담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윤다현 : 교과 전담 배정은 우선 작년에 했던 사람이 대부분 했어요. 교무부장선생님과 연구부장 선생님이 그대로 보직교사를 하시기 때문에...그리고 나머지 교과전담선생님도 올해 신청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정도를 하게 되면 교과전담을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솔직히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해야되나.

<2013. 07. 21 교사 윤다현>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담임배정뿐만 아니라 교과 전담교사를 배정할 때도 중임이나 연임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사실상 죄를 짓는 느낌을 많이 갖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년별로 기피 학년이나 특정 학생들의 수준과 특징에 따라 부담스런 학년을 맡았던 선생님의 경우는 다음해에는 다소 쉬워 보이는 학년이나 특히 교과전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이 경우에 특히 학교별로 다음해에 진출을 하게 되는 학교 만기자의 경우는 교과 전담 배정에 상당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4년차 정도 되었을 때 그 때 이제 만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과전담이나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2013. 09. 06 교사 김중희>

인사이동 원칙에 의해서. 제가 2학년 3반이었는데 저도 4년 째 만기였는데 이제 인사이동 원칙에 의해서 점수 때문에 교과전담으로 갔어요. 인사위원들 대부분이 만기니깐 하고 배정해주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2013. 06. 21 교사 이성훈>

자질과는 상관없이 전년도에 고학년을 담당했던 교사가 당연히 교과로 배정된단지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인사이동 전 마지막 근무 해에 해당하는 만기 근무자를 우대하는 모습인데 만기 근무자의 희망대로 배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관례가 되어있어 학교에 따라 인사내규에 포함되어 있다.

로테이션되는 것은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첫 해 중학년 했고, 그 다음, 그 다음 해에 5, 6학년 했다. 그러면 교과를 원하면 한번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3. 10. 17 교사 한은미>

뭐든 배려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본교 근무 경력도 또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 그 선생님이 또 이동되어 나가시는데 막 고학년만 계속 힘들게 하시다 나가기가 또 죄송스럽고 하니까.

<2013. 10. 24 교사 김중희>

지금까지 현재의 교과전담교사의 배정 실태를 살펴 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전담에 어떤 교사가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보다는 학교 업무처리의 편의성, 노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인사내규에 바탕을 둔 공평성에서 학교 내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은 갈등상황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보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과전담교사로 배정해 줘야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별로 원칙상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국 교과전담 배정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나 전담교과 과목에 적합한 교수기술, 과목의 전문성, 업무 부담이나 건강, 인사내규 등 그 외의 다른 요인들 중 어느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갈등들은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논 의

지금까지 교과전담교사의 바람직한 배정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내 인사배정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그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담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실제 전담교사로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원래의 취지는 전문성 신장과 담임교사의 업무의 과다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전담체도가 시작되어 운영되었지만 그 배정에 있어서는 업무가 과중한 교사에게 업무처리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혹은 고경력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질병이 있거나 출산 예정인 교사들의 건강을 배려하거나 이 교사들이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을 때 기간제 교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로 배정해 주기도 하였고 무조건 저·중·고학년을 순환 근무하게 하거나 만기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으로 고려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특정 교과의 경우 예를 들면 영어전담 교사의 배정에 있어서는 대부분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배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외의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의 교사 배정 실태를 고찰해 본 결과 전담교과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교사의 배정이 현재의 배정실태처럼 학생 지도에 대한 자질보다는 업무나 건강, 연령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이루어지고 해마다 그 갈등을 반복한다면 전담교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정 방식은 전담교과에 대한 자질을 좀 더 갖춘 다른 교사로 하여금 전담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여 전담교사를 배정해야 할 것이고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교내 교과전담교사 인사배정에 있어서 겪고 있는 갈등은 무엇이 존재하는 지 알아보고 나아가 추후 바람직한 자질을 갖춘 교사가 교과전담교사로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견한 현상을 바탕으로 교과전담교사의 수업의 질 향상 및 자질 있는 교사의 바람직한 배정을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전담교사는 담임교사와 동등한 입장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담교사가 교과를 지도할 경우 수업 연구에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담임교사와 업무의 경감성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전담교사 또한 학생과의 끊임없는 상호소통을 위한 노력과 수업 외 시간을 통한 동료교사와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만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와의 인식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전담교사는 학교 업무의 보조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담교사가 일반 담임교사에 비해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일, 또는 학교의 잡무를 맡기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주요 업무 부장을 맡거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교과전담교사로 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과전담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과중한 학교업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사배정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므로 당연히 교과전담 수업은 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업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교과전담이라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교과전담 교사의 우선배정기준이 주요 업무부장인 관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전담교사가 발휘해야 할 전문성을 고려한 외부 환경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고학년과 저학년, 담임과 교과 간의 무조건적인 순환근무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융통성 있는 인사운영이 요구된다. 기피학년을 여러 해 맡음으로써 점수가 많이 쌓인 교사가 원할 경우 더 자질 있는 교사가 있더라도 전담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는 교사의 자질보다는 근무의 공평성만 고려한 행정처사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예산배정에 있어서 학년담임과 교과전담교사의 배정되는 예산의 차이, 오히려 학생 수는 더 많이 맡고 있으면서도 단지 한두 과목만 가르친다는 이유로 예산 문제로 겪는 차별 등은 학교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교과전담교사 스스로의 연구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 현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교과전담교사로 배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많은 학교에서 건강이 좋지 못한 교사나 발령을 앞두고 있는 교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

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전담으로 배정되고 있다. 이들을 배려해 주는 것은 교사의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일지라도 전담 교과에 대한 개인의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교과전담제를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문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가 현재의 교과전담교사 배정 방식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나아가 교과전담제도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 Education law books publish(2013). Education law books 2013. Seoul: Kyohaksa.
- Ham, Jae-Su(2002). The study of Elementary Specialized Subject Teacher System, Dongyang University.
- Kim, Ho-Gyoung(2012).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Lives of the Subject Specialized Teachers at an elementary School, Kyung Hee University.
- Kim, Nam-Hong(2002). A study on the Operation of Full-time Grade teacher system, Joongbu University.
- Kim, Young-Chun.(2006). Qualitive Inquiry and Research 1, Seoul: Educational Science.
- Kim, Ju-Hae(2004). The study of elementary english teachers anxiety, The Journal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10(1), 43-66.
- Ko, Kyoung-Hee.(2005). Which system to pursue for a more effective primary school English teaching: the specialist teacher system, The Journal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11(1). 5~31.
- Lee, Han-Hwa(2007). Perception of Job Stress in Teaching and its Coping Strategies for Specialized Subject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InCheon University
- Lim, Jae-Moak(2003). A Study on the recognition Differences between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and Teachers in Allocation Teacher-in-charge, Hanseo University.
- Nam, Kang-Ruel(2001).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gnition About Departmental Syste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rk, Jong-Won(2011). Nvivo 9.0 application, Seoul: Hyongsul.
- Park, Ee-Jung(2008). Desirable Qualities and Directions for the Assignment of Lower Grades English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eok, Hae-Seung(2010). A study on the status of Operating Subject Teacher System at Elementary School and Teacher's Perception of Achievement,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Bogdan, R. C. & Biklen, S. K.(1982). The New approach of Education research, Seoul: Educational Science.
- Creswell, W. J.(1998). Qualitive Inquiry and Research : the five tradition, Seoul: Hakji.

-
- 논문접수일 : 2014년 05월 29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6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6월 30일